

KB국민은행 - YMCA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4기 캄보디아팀

# 9월 활동보고서



작성자 : 김진우, 성지은, 양예림, 이정도, 한유리

# - 차 례 -

## 1. 캄보디아팀 9월 스케줄

## 2. 다일공동체 센터활동

- 결식아동들을 위한 밥퍼, 빵퍼 활동
- 기초 보건위생 활동(머리 감기기)

## 3. 교육활동

- 3-1. 쌀라 라온아띠
- 3-2. 시엠립 한글학교
- 3-3. 스텝 교육

## 4. 라온아띠 프로젝트

-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 5. 향후 계획

- 꽃밭 프로젝트

## 6. 맺음

# 1. 라온아띠 4기 캄보디아팀 9월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8:30 ~ 13:00	다일공동체 밥퍼, 빵퍼 활동					시엠립 한글학교
13:00 ~ 14:30						
15:00 ~ 17:00						스텝 한글 교실
						스텝 컴퓨터 교실
17:00 ~ 18:00	쌀라 라온아띠		쌀라 라온아띠		도서관 프로젝트 (2주에 1번씩)	

## 2. 다일 공동체 센터활동



- 결식아동들을 위한 밥퍼, 빵퍼 활동
- 기초 보건위생 활동(머리 감기기)

캄보디아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부터 다일 공동체 센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단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센터활동의 특성상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초반에 센터 활동에 적응하는 단원들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해 의견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일일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팀원들 모두가 센터 내에서 더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었다. 한국인 스텝들과 지내는 환경 또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한 가족처럼 잘 어울리게 되었다.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밥퍼 활동이 우리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다. 비가 거세게 오는 날 거침없이 빗속에 뛰어들어서 아이들과 뒤섞여 뛰놀 때, 우리 모두는 다들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같은 감정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 3. 교육활동

#### 3-1. 라온아띠학교



-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육활동 (영어, 한국어, 수학)
- 다일 센터 내에서 1주일 2회 진행 (월, 수)

과 목	담당 단원
한국어(기초)	양 예 립
한국어(중급)	김 진 우
영어(초급)	한 유 리
영어(중급)	이 정 도
수학	성 지 은

각 반마다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영어·한국어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교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한국어 기초반은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좋지만, 출석

체크 및 명찰관리는 하지 않는 방안을 세웠다. 또한 팀원 모두가 라온아띠 학교 수업 진행시 크메르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파견 후 한 달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크메르어 수업을 일주일에 2회 5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하였다.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움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가고, 더 정성껏 매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기대되는 점은 10월 말 도서관 2층에 완공될 교실에서 함께 수업할 우리와 아이들의 모습이다. 아이들의 학교가 개학해서 라온아띠 학교 개학 진단지를 뿌릴 계획인데, 인원이 더 늘게 되어 분반을 하게 되는 것이 팀원 모두에게 고민이다.

### 3-2. 시엠립 한글학교

- 시엠립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한글학교
-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수업진행(국어, 수학)

학년 및 과목		담당 단원
6학년 국어	3학년 수학	김진우
4학년 국어	4학년 수학	성지은
3학년 국어	5학년 수학	이정도
2학년 국어	6학년 수학	한유리
기초반 국어,수학	2학년 수학	양예림

한글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대상이 현지 학생들이 아닌 한국 교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우리 5명도 이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각자가 한 학년의 담임을 맡게 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다.

다만 현지 교민 자녀들이라 해도 여타 한국 아이들처럼 한글학교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라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있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함에 있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이 들었고, 따뜻함으로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열린 수업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3-3. 센터 스텝 교육

- 다일 공동체 현지인 스텝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한국어, 컴퓨터)
- 다일센터 내에서 1주일 1회 진행(금요일)

과 목	담당 단원
한국어 기초반	김진우
한국어 기초반	양예림
한국어 중급반	이정도
컴퓨터	성지은, 한유리

교육을 받는 스텝들을 2개의 한국어 기초반으로 나뉘, 수업을 진행하는 단원이 스텝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반을 편성하였다. 한국어 기초반에서는 일상회화와 한글 쓰기 수업을 진행 중이며, 수준에 따라 중급반으로 재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교실은 문서 작성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스텝들이 센터 내에서 문서작성을 필요로 할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들은 스텝들 교육으로 인하여 현지 스텝들과 더욱 친해지고, 이해하며, 서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지는 것 같다.

## 4. 라온아띠 프로젝트

### - 라온아띠와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라온아띠 4기가 캄보디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다일공동체에 KB의 후원으로 지어진 도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원장님과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센터 내 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10월1일 첫 프로그램으로 북아트를 이용한 '자기얼굴소개하기'를 실시하였다. 첫 모임은 준비과정에서 팀원들이 예상했던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었다. 또한 각자의 반을 책임지는 교육활동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은 5명이 더불어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활동을 하여서 좋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오는 것이 즐겁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다든지 독후감, 시 등을 쓰기를 원했지만 그에 앞서 책을 읽는 일 자체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 구연동화나 인형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책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계를 먼저 생각하고 어린나이부터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두 번 한 시간 만큼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꿈을 갖게 해주고 싶다.

## 5. 향후 계획

### - 꽃밭 프로젝트

현재 밭퍼 센터의 이전과 라온아띠 학교로 쓸 도서관 2층 공사로 인하여 센터 주변이 어수선하고 공사 현장으로 지저분한 상태이다. 곧 완공될 밭퍼 센터와 도서관 주변에 꽃들을 심고 가꾸어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다.

## 6. 맺음

9월을 마무리 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것이 아쉽고 팀원 모두가 큰 사고나 어려움 없이 적응을 잘 해내가는 것 같아서 기쁘다. 우리 팀원들이 일일피드백 및 모든 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들로 더욱 끈끈해지는 것 같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한다.